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오늘날의 우리 언어생활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2004년 4월 6일(화) 자 어느 스포츠 신문 제1면의 머리 기사를 분석해 본 것이다. 괄호 안의 한자는 필자가 써 넣은 것이며 숫자는 중복되어 나타난 횟수임.

한자어

가랑	경기	공동
관중석	개	
남자	년	내
단독②	대형	대포
대(對)	등②	득점
단타		
루	-루타③	리
말(末)⑥	맹타	

24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번	발동	부문
분위기	비거리	
상대	선수	선두②
선발②	상단	승
안타⑦	우월	우전
연승	우중간	야구
연속	일③	월
이후	위(位)②	우중월
장면	전③	점
자신감		
최다	초반	
투수④	타석③	타율④
타수	타자②	타점③
타격③		
폭발	푼(分)	패
회⑥	호②	할

한자어+하다

강타했다	기록했다	
완벽하게	연출했다	유혹했다
출전한		

고유어(품사 구분 없음)

기	공	거침없었다
가르며 가운데	그려냈다	걸어올랐다
굉충	꺾고	
나왔다	내달렸다	낮은
두 번째	달랐다	달
-다운	대	때

떨어지는	뛰어나갔다	뛰어올랐으며
모습	물러났다	몸
벗어나는	비롯해	붙은
벌어진	빠진	
세 번째	섯다	속
쏟아져	쏘아올렸다	승짱(유행어)
오른쪽	알아야	아깝다
읽으면	이	아까운
이틀		
체대로	죽었다	지난
쪽		
첫 번째		
터뜨렸다		
한	한편	하늘
한다	하지만	한꺼번

외래어 · 외국어

게임②		
땅 불		
볼카운트②	배트	
솔로	사이클링②	시즌②
스트라이크		
아시아	에센스	아치
존		
커브②	킹	
팀③		
프로	파울	폴+대
홈런⑤	히트②	

26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외국 고유명사

퍼시픽리그

긴테쓰

지바롯데

마린스타디움

로마자

MIREPA

SPORTSCHOSUN

COM

S

M②

조사

가②

과①

는④

로⑧

만③

부터①

에④

은⑥

의③

을⑦

이④

에서⑤

으로②

수사

1⑧

2⑦

3⑥

4⑦

5②

6③

12①

34①

130①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신문의 짧은 기사에서는 어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합성어는 하나로 본다.

한자어 108

고유어 54

외래어 33

외국어 · 로마자	6
조사	55
숫자	37

고유어는 한자어의 절반밖에 안 되고, 한자어도 외래어로 인정한다면, 한자어 108 + 외래어 33 + 외국어 · 로마자 6 → 147이 되어, 고유어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다음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다. 이것은 2004년 4월 15일 아침에 배달된 어느 광고지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것이다. 단어 뒤의 숫자는 2회 이상의 빈도수다. 3자형 합성어도 하나의 단위로 계산하였다.

한자어(고유명사 포함)

漢字 표기

明堂	名家②	新
王家	絶對	

한글 표기

광화문	광화문-역	가치②
고-품격②	각종	계획
가(街)⑤	교보	개별
건강	가량②	고급
공간②	공용⑥	거실
규모	공원	검침
감각	기존	급
강남	기회	고객③
구성	금융②	건강
귀금속	권장	건설(주)
개발	건축	고전

감각적		
년(年)	내일	내용②
낙후	냉-난방	
동아일보	동선②	다소②
대형②	대학생	단연
대한민국	도심④	동시
다기능	등⑦	대표적
면적	명당	미국대사관
물론	만(萬)③	맥주전문점
민속주점	문자	미학
문화②	명소②	매점
맥락		
분양⑦	변경	병원
별	복원	방향
본점	보안	방송
부분		
소문	시행	사진②
신화	신축	사업②
시민②	실제	시행
성공	설치	상기(上記)
세대⑨	사고	시설②
신촌	세종문화회관	생태
상가③	설계②	실내②
상권⑤	시공사②	수송로
세종로	소아과	식당가
시발점	세련미	수영장
소비자	신호탄	성형외과
일(日)③	일대	월
일과	영풍	위성
일부	원격	액정

이해	예상	유동②
인구	위치	예산
이상③	유흥	여(餘)②
억원	업체	입점
업종②	요리	예정②
역	완공·시	양변기
음식물	이용객	역세권②
유학원	어학원	여행사②
음식점	양면성②	안국동
일환		
중심④	직접	절대
정보	자막	지하
-장(場)④	주차	제어
정수	진등	제일
전략	증권	전문②
전자	지상	지역②
전용⑥	중간	주거②
정취	종로	주변②
준비	주점	조성
정부종합청사 ¹⁾	정보통신부	종로구청
종각역③	제일은행	전통미②
재개발②	재탄생	지하철②
직장인	전통적	계과점
침단	처리	차이
층	최고	치과
최적	최대한	초고속
최고급③	최첨단	최중심
청진동②	청계천로	초특급
청계천②	친환경	

1) ‘정부중앙청사’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30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투자②	탄생②	통신
평면	품격	편
필승	평⑦	평형⑨
폭③	피부과	편의점
편리성	품목	
현장②	-호선(號線)②	황금②
핵심	환경②	향후②
형②	학원	현재
휴식	향토	활용
학원가	현대식②	흡인력
회원권②	한의원	현대미
회원		

한자어 + 하다

개관합니다	가능한	고려하여
광활한	극대화한	
달하는	도입하여②	
마감하고		
선사합니다		
연계한, 연계하여②	우아함	위한, 위해②
위치하고②	완벽한③	이용하실②
인수한		
재구성하여	준비하는	주목하십시오
제안합니다		
쾌적하고		
탁월한	특별한	탄생할, 탄생합니다②
편안하게②		
혜소하고	형성하여	확장하여
확인하십시오		

한자어 + 되다

개발되는	건설됩니다
변경될	
세련된②	설계되어
예상됩니다	
조화된	조성되며
투입되는	
형성되어	

한자어 + 시키다

만족시킵니다
탄생시킨, 탄생시키게
한자어 + 룩다
자유롭게③

고유어

그⑤	곳②	것③
것입니다	가지고	가장
가지	거리	거듭
긴고 싶은	골목	꿈②
끊이지	깨끗하고	
넷②	느낄	누구
늦게	넓고	넓히고
넘치는	넓혀주는	놓치지
높아집니다		
더	둘	돋보이는
두	더욱④	다섯②
담겨	돕기	듣던
뛰어납니다	또한	
맞⑧	매우	맞물려
마십시오		
밤		
수⑧	서울④	새
셋	속	새벽
새로운④	살리면서	살린

이제	위	이름
않는	있을③	있어②
있고	있는	옛
있으며	있습니다⑦	아름다운③
이어온	이러한	
즐길	자리	정겨운
즐기실	자리매김할	
터	태어납니다	
피맛골⑩	펼쳐지는	
한	하나다	하는
하루	하였습니다	

외래어 + 외국어

골프⑥		
도어·록	디자인	디지털④
더블②		
르·메이에르	로얄②·스마트라③	랜드마크②
라이프	라인	레저
리조트		
모델②		
빌딩⑤	비즈니스	비데②
브랜드②		
스타일②	시스템⑨	쇼핑
센터	스카이	샤워부스
스퀘시	스포츠③	스낵코너
샵②③)		

2) ‘로열’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3) ‘숍’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오피스②	이미지②	아파텔
인테리어②	업그레이드	에어로빅
오토메이션		
커피	클리닉	클럽④
컨셉④	칼라⑤	
타운②	터널	트윙
프로젝트	패션	플라워
포인트	프리미엄	
헬스	하우스②	

로마자

A②		
B⑤	BATHROOM②	BEDROOM②
CONSTRUCTION	CO. LTD.②	CLINIC②
CLUB		
DINING	DRINK	DIGITAL
EDU		
FINANCE	FASHION	FOOD②
FLOWER	F⑤	
HANI	HARBOR	
IT		
JONGNO②		
LE MEILLEUR④	LIVING②	
m④	MD	
OPEN	OFFICE	

4) ‘콘셉트’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5) ‘컬러’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34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P.S.	Pima	PIMATGOL
PEARL		
ROOM③		
SPORTS	SWEET	
TOWN⑨		

숫자·로마자 표기 67

조사·접미사

가⑧	과⑥	까지②
나②	는③	ㄴ
도③	-들②	
로서	로⑧	를⑩
만⑥		
부터		
이⑧	은⑨	을
의	에⑨	와⑤
와는	으로⑫	에게
에서③	이다④⑨	

위에서 분석한 것을 통계로 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	405 +62 = 467
고유어	129
외래어	113
로마자	67
(로마자)숫자	67
조사·접미사	132

위의 숫자에서 한자어와 외래어, 로마 글자까지 외래어로 계산한다면, 고유어와의 비율은 647 : 129가 되어, 우리가 쓰고 있는 서사(書寫) 언어의 어휘 가운데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자로 된 숫자도 외래 글자에 속하므로 외래어의 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표본으로 보인 것은 광고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널리 각 가정에 돌린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젊은이들로 항상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어느 피자 전문점의 차림표 광고를 살펴보겠다.

이 가게에서는 손님이 영어를 다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음식 이름과 설명을 번역문도 없이 영어 원어대로 쓰고 있다. 실지로 고객들은 자연스러이 이 메뉴대로 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

<피자 에탕(Pizza Etang)>

(크기)

Large

Regular

(메뉴)

Special Menu

Potato Special 포테이트⁶⁾ 피자

Cheese Crust 치즈 크러스트 피자

Super Supreme 슈퍼⁷⁾ 슈프림

Bulgogi 불고기

Pepperroni 페퍼로니

Pineapple 파인애플

Potato Special 포테이토 스페셜

Bacon Salami 베이컨 살라미

Garlic 갈릭

Mexican Taco 멕시칸 타코

6) ‘포테이토’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7) ‘슈퍼’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Side Menu

치즈그라틴 스파게티	보르네즈 스파게티
옥수수	철판구이
무료 서비스	피클
핫소스	콜라

또 다른 피자 가게의 광고에는 한글로만 적기도 하고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하고 있다.

<도미노피자(Domino's Pizza)>

더블크러스트 이탈리아	더블크러스트 프렌치
더블크러스트 씨푸드(Double Crust Seafood)	
올스타(All Star)	슈퍼슈프림(Super Supreme)
포테이트(Potato)	슈퍼디럭스(Super Deluxe)
베이컨 체다치즈(Bacon Cheddar Cheese)	불고기(Bulgogi)
미트리버	페페로니
하와이안 스페셜 ⁸⁾	하드 앤 하드
추가 토핑	Side Dish & Beverage
치즈 스파게티	시너스틱
콘셀러드 ⁹⁾	스프라이트

영어가 많이 쓰인 차림표

- Double Glazed Ribs(더블 글레이즈드 립스)
- Baby Back Ribs(베이비 백 립스)
- Mushrooms, Chicken & Mushrooms(머쉬룸¹⁰⁾ 치킨 앤 머쉬룸)
- Combination Steak(콤비네이션 스테이크)

8) ‘스페셜’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9) ‘콘셀러드’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10) ‘머쉬룸’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New York Strip(뉴욕 스트립)
 Combination Pizzadilla(콤비네이션 피자디아)
 Spicy Cajun Chicken Pasta(스파이시 케이준 치킨 파스타)
 Cajun Angel Dinner(케이준 엔젤¹¹⁾ 디너)
 Szechuan Shrimp Pasta(췌차안 쉬림프 파스타)
 Cajun Fried Chicken Salad(케이준 프라이드 치킨 샐러드)
 Seafood Marinara(시푸드 마리나라)
 Friday's Three-For-All(프라이데이즈 쓰리-포-올)
 Smoothies & Flings
 Filet Mignon(힐렛 미뇽)
 Jack Daniel's Steak(잭 다니엘스 스테이크)

<T.G.I. Friday's Best Menu>

Kid Banana Kong(키드 바나나 콩)
 Kid Hamburger Steak(키드 햄버거 스테이크)
 Kid Fried Rice(키드 프라이드 라이스)
 Kid Jack Daniel's Ribs(키드 잭 다니엘스 립스)
 Kid Jack Chicken Strip(키드 잭 치킨 스트립)
 Kid Orangeade(키드 오렌지에이드)
 Kid Strawberry Sunrise(키드 스트로베리 선라이즈)
 Kid Wing & Cajun Shrimp(키드 윙 앤 케이준 쉬림프)
 Kid Tropical Island(키드 트로피칼 아일랜드)

위에 예로 든 외식 전문집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어느 전통음식점의 차림표를 예로 들어보겠다.

김치보쌈	김밥	계란말이김밥
공기밥	광어	개불
냉면		
닭도리탕	덮밥	돌냄비우동

11) ‘에인절’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떡국	떡볶이	떡라면
떡만두국	된장찌개	돌솥비빔밥
돌솥낙지	돈까스	
라면	라볶이	
물만두	모듬김밥	만두
만두국	매운탕	명게
보쌈	부대전골	불낙전골
보쌈속김치	보쌈김치	볶은밥
비빔밥		
식혜	산낙지	샐러드김밥
순두부찌개	수제비	세꼬시 ¹²⁾
야채셋트 ¹³⁾	야콘쟁반국수	아구찜
오징어	육개장	음료수
오프라이스	우럭	
쟁반	쟁반국수	족발
잔치국수 짬뽕	짬	졸면
춘천막국수	참치	철판불고기덮밥
카레	칼국수	콩나물볶어국
탕		
해물요리	해물탕	해물파전
항아리(수제비)	활어회	햄전골
셋트쿠폰 ¹⁴⁾	서비스	아르바이트
야콘	스페셜	메뉴
샐러드	치즈	누드(김밥)
카레	오프라이스	돈까스
햄	공기	

12) ‘세꼬시’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13) ‘야채셋트’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14) ‘셋트쿠폰’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가든(소·돼지 고기 전문)

꽃등심

냉면

돼지갈비

돌솥비빔밥

된장찌개

비빔냉면

삼겹살

생태전골

삼계탕

숯불왕갈비

숯불생갈비

숯불돼지갈비

왕갈비

영양돌솥밥

영양갈비탕

우거지갈비탕

양념갈비

양식 전문집에 비하여 외래어가 덜 쓰이고는 있으나 외래어로 된 음식 이름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분야의 예밖에 들지 않았으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외래어 없이는 언어생활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물론 한자어를 제외한 서구어 계통의 외래어는 전체 어휘 수의 10% 이내에 지나지 않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영어에 뿌리를 둔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되풀이되어 쓰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문물의 전래와 함께, 이를 표현하는 말들이 쏟아져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겨레가 외래어를 쓰게 된 경위를 살펴보겠다.

2. 외래어를 쓰게 된 경위

외래어는 외국 문화, 외국 문물과의 접촉에서 생긴다. 외국 문화, 외국 문물과 접촉하게 되면, 이에 관련되는 외국어도 전래한다. 문화적인 교섭과 함께 언어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로부터 언어단위를 차용하는 환경이나 조건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복 등에 의하여, 기존 언어 위에 이질적인 언어가 완전히 덮어 씌워지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원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복자의 언어가 피정복 지역 안의 공용어로 사용되어, 원주민들은 부득이 이중언어생활(bilingualism)을 영위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이 결과, 원주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복자의 언어로부터 상당한 양의 언어단위를 차용하게 되고, 정복자의 언어를 강요하는 언어 정책이나, 또는 월등하게 우수한 정복자의 문화 수준 등으로 피정복 기간이 길면, 자기 고유 언어의 발달이 위축당하는 일까지 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수준의 차이로 고도의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 수준이 낮은 언어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문화 수준이 낮은 쪽이 수준이 높은 문화 쪽을 동경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경우는, 문화적인 수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웃하고 있는 언어끼리의 교섭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는 차용이다.

삼국시대 무렵부터 19세기 중기경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족의 문장어인 한문을 공용 문장어로 사용하고, 구어는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은 이중언어생활을 거의 이천 년 동안 영위해 오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한어로부터 수많은 단어를 끊임없이 차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국어 단어 수의 절반이 넘는 숫효를 한어계의 어휘인 이른바 한자어가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국어 안에 급격히 늘어난 일어계 외래어는 외래어라는 범주 속에 넣기가 매우 어려운 외래어의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어적인 요소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30여 년간 강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언어 정책상 혹독하게 한국어 말살 정책을 쓰고, 통치자의 언어였던 일어의 사용만을 강요한 데서 생긴 부산물이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이중언어생활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어라는 공용어 사용만을 강요하였으므로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일어적인 요소가 침투하고 말았다. 그러나 8·15 광복과 더불어 언어 정책 수행자가 일어적인 요소 축출

운동, 즉 국어 정화 및 순화 정책을 추진해 와서 오늘날의 우리 국어 생활에서는 외국어인 일어적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외래어는 국어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국어를 차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말엽의 개화기와, 1945년의 광복 이후에 받아들인 서구어 계통의 차용어가, 국어에서는 진정한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까지의 한문화 영향 아래에서의 국어 생활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제도의 유입과 함께 한어계의 단어를 차용하였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한문화와 한어의 영향이 컸었고, 일제 시대의 영향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외래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서구어 계통의 어휘를 남용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생긴 현상이다.

3. 외래어의 수용 과정

체계가 다른 언어로부터 언어 단위(주로 명사)를 차용하는 방법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되도록 외국어의 어형과 원음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이다.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대개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19세기 중기 이후에 우리 국어가 받아들인 서구 및 일어 계통의 외래어는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차용하여 쓰고 있다.

보기: 서구어계 - 라이타¹⁵⁾ 핸들 빠다¹⁶⁾

일본어계 - 데모도도비라 시다

15) ‘라이터’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16) ‘버터’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42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아마 19세기 이전 한어를 차용할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어의 어휘들을 받아들여, 처음에는 소위 한자어들을 원래의 독음, 즉 한어의 발음대로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마다 독특한 음운체계가 있으므로, 한자어의 독음도 차츰 국어의 음운체계에 맞도록 변형되었고, 서구어 및 일어 계통의 차용어도 그 어형과 발음에 변화가 생기어, 국어화한 어형과 발음을 나타내게 되었다.

원어	국어	한어	일어
gas	가스	瓦斯	gasu
lemon	레몬	檸檬	remon
sofa	소파	沙發	sofa
club	클럽	俱樂部	kurabu

또 다른 외국어 차용 방식은, 외국어를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여 쓰는 방식이다. 이를 ‘역어(譯語)’ 또는 ‘번역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의역(意譯)’이라고도 한다.

영어	국어	한어	일어
railway	鐵路, 鐵道	鐵路	鐵道
elevator	昇降機	電梯	昇降機
steamship	汽船	輪船, 汽船	汽船, 蒸氣船
aeroplane	飛行機	飛機	飛行機
cunning	不正行爲	作弊	不正行爲

영어 불어

Great Britain → la Grande Bretagne

the United States → les États-Unis

일어	국어
suri(掏摸)	소매치기
shibori(絞り)	물수건

그러나 같은 표음문자를 쓰고 있는 불어에서, 영어를 번역하거나 변형시켜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를 본다면, 외래어를 발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번역하여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언어 정책 수립자들의 방침에 달린 것이다.

외래어 수용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언어단위를 차용하느냐 하는 문제다. 국어 안의 차용어는 대부분 명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그대로 차용되고, 원어가 명사가 아닌 경우에도 대개 국어의 명사로 변형해서 차용한다. 만일에 이들을 용언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접미사 ‘-하다’를 붙여서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조상들이 한어(중국어)를 차용하여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우리 겨레는, 국어 어휘의 태반이 넘도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자어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동시에, ‘-하다’만 붙이면, 용언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실지 언어생활에서는 더 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어 계통의 외래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 자 계: 煽動·努力·中傷+하다

서구어계: 데이트·스케치·브리핑+하다; 스타트·노트·테스트+하다

일본어계: 간조(勘定)·쇼부(勝負)+하다; 요코비키·후카시+하다

4. 문화사적으로 본 외래어

국어 안의 외래어를 개관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사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겨레가 외래어를 받아들인 경로를 고찰해 보겠다.

① 한어·한문 영향 시대(19세기 중기 이전)

삼국시대부터 한어·한문과 접촉을 갖게 되고, 특히 우리 고유문자인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자만이 유일한 표기 수단이었으므로, 한어·한문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국어의 기초 어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한어계 어휘가 침투하여 들어왔었다. 가족 사이의 호칭, 수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식물명, 기구명 등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이상·진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한자어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돈(查頓), 인군(人君), 각씨(閻氏)’와 같은 한자어도 쓰이게 되어, 한자어는 증가일로를 걸어왔다. 이런 추세는, 19세기 이후에 서구어 계열의 외래어를 쓰게 된 뒤에도 변함이 없어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개념은 한자어를 신조하여 표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자어는 불교문화로부터 어휘를 차용할 때에도, 불교의 경전을 기록하였다는 범어나 pāli어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역한 것을 차용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자연스럽게 한자어는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Sanskrit	Pāli	한어(漢語)
Amita	Amita	→阿彌陀(無量壽佛)
Yama	Yama	→閻魔
	Kāsāya	→袈裟(僧衣)

Skya	Sakya	→釋迦
nirvana	nibbāna	→涅槃
	Bodhisattva	→菩提薩埵(菩薩)

이 밖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중국인이 한역(음역 또는 음역)한 불교 문화계 한자어는 우리 국어 어휘 속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원(元)과의 접촉 결과, 일부 관직명은 원나라 것을 그대로 썼고, 말과 매, 그리고 군사와 음식에 관한 단어들을 차용하였다.

② 서구어 영향 시대(19세기 중기 이후)

19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는 서구문명과 접촉하면서, 비한어계 외래어를 새롭게 많이 받아들였다.

19세기 이전에도, 조선조 인조 무렵에는 중국을 통해서 과학, 지리, 기독교 관계 서적이 들어오고, 인조와 효종 때에는 박연(朴淵), 하멜과 같은 화란인이 표류해 오기도 하여, 한어로 번역된 서구어를 알게 되고, 또 직접 듣는 기회도 있었으나 19세기 중기 이후처럼 막대한 양의 차용어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능화(1928)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하면, 19세기 이전의 서구어계 외래어로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2차 차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伊朗機國	永結利	意大里亞	歐羅巴	阿蘭陀國
耶蘇(敎)	天主	領洗	瑪利亞	
自鳴鐘	遠視鏡	千里鏡	幾何	

이 밖에도 상기한 이능화(1928)에서는, 선조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醫)·화(畫)·역(曆)·천문(天文)·음악·과학 등 서양 문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서구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구어를 차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엽 개화기부터의 일이었다.

서재극(1971)에 의하면, 개화기의 문헌인 ‘서유견문’(1895), ‘독립신문’(1896), ‘혈의 누’(1906) 등 신소설, ‘증보문헌비고’(1908), ‘소년’(1908), ‘A Korean-English Dictionary’(Gale, 1911) 등에는 상당수의 외래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을 검토해 보면, 역시 외국어를 음역과 의역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음역 ① 한글로 표기한 것.
- ② 한어에서 한자로 음역한 것을 우리나라 한자음으로 읽은 것.
(일어에서 재차용한 예도 보임).
- 의역 ① 국어의 고유어로 번역한 것.
- ② ‘洋’이나 ‘新’을 붙여 한자어로 조어한 것.
- ③ 한어나 일어에서 한자어로 음역한 것을 재차용한 것.

몇 예만 인용해 보겠다.

- 음역 ① 삼포 ←불어 chapeau(모자)
대나마이트 ←영어 dynamite(폭발약)
포켓 ←영어 pocket(주머니)
쯔메에리 ←일어 襟[tsume-eri](학생복처럼 옷깃을 세운 옷)
- ② 아편 ←한어 鴉片 ←영어 opium
와스 ←한어 瓦斯 ←영어 gas
- 의역 ① 훌태바지 ←불어 Jupou
- ② 양말 ←영어(foreign) socks
양과자 ←영어(foreign) sweets
양요리 ←영어(foreign) food

新敎 ←영어 protestantism

新曆 ←영어 solar

③ 格物學 ←한어 ←영어 philosophy

火輪船 ←한어 ←영어 steam-boat

弗拉涅爾 ←한어 ←영어 flannel

이 밖에 일일이 그 유래를 밝히기 어려운 의역어(한자어)들이 있다.

보기: 遠語機(전화) 時票·時鏢(시계) 鐵丸(탄환) 通辯(통역)

遠照機(망원경) 留聲機(축음기) *괄호 안은 현대어

이것은 중·일·한 삼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한자어를 이용하여 번역하고, 중·일 양어는 번역된 한자어를 상호 차용하였는데, 한국어는 다시 이들로부터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 유래를 잘 알 수 없게 된 어휘가 생긴 것이다. 서재극(1971)은 다시 새로운 표현법의 발달 예로 일어에서 쓰기 시작한 접미사 ‘的’의 사용을 들었다. 용례는 ‘소년’지(1908)부터 나타난다고 하였다.

的(teki)[불어-tique; 영어-tic] -的

陸上的 遺傳性

世界的 處地

너모 數學的이 되난 고로

比較的 평범한 사람

이와 같이 ‘어간+·적’이 a.관형사, b.부사, c.명사로 쓰인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도 새로운 형식의 차용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개화기의 외래어 사용에 있어 두드러진 현상은 다음과 같다(서재극: 1971).

- ① 1906년부터 외래어가 급증했다.
- ② 아직 외래어화 과정에 있는 단어가 많았다.
- ③ 초기 음역 외래어는 한어어음으로 된 것이 단연 많다.
- ④ 서구어계 외래어가 대부분이고 일어계는 얼마 안 되었다.

당시의 외래어가 대부분 서구어계였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던 처지로 보아서, 1900년대 이후의 이들 서구어 계통 외래어는 거의 일어를 통해서 차차용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한 음역 외래어가 1908년의 ‘소년’지로부터 대량으로 나타났는데, 그 잡지의 편집자가 일본 유학생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가방 알코홀 잉크 인스피레이션 싹테리아 매담 커피

1910년의 망국 이후에도 서구어계 외래어의 수는 증가하기만 하여, 이종극(1937) ‘모던朝鮮外來語辭典’에는 약 1만 3천에 달하는 서구어계 단어들 이 수록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의 9할 가량이 영어계임이 서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1930년대까지의 신문·잡지·문학작품 등에서 채록한 자료들이라(1933년에 편찬, 1936년에 인쇄 완료), 그 시대의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만한 정도의 외래어를 일상 회화에서 썼는지 알 수 없으나 문헌자료만 보아도 상당한 양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945년의 8·15 광복 이후, 모든 생활면에 걸쳐서 우리가 미국 문화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결과로, 이와 같이 많은 영어계 외래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종극(1937)에 의하면 1930년대에도 외래어의 9할 이상이 영어계이었으므로, 이것은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어라는 점에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일어계 외래어의 유입 과정을 살펴보면 서재극(1971)만 보더라도

개화기의 외래어 가운데, 일어계는 ‘쯔메에리, 히사시가미’ 등 아직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10년 이후는 형편이 달라졌다. 일본어는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그 사용이 강요된 ‘공용어’이었으며, 우리는 되도록 우리 고유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루 속히 외국어인 일어만으로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의 광복 이후에도 국어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일어라는 외국어가 스며들게 되었다.

사라(접시) 오봉(쟁반) 우와기(웃도리) 에리(깃) 가고(바구니)

이 밖에 일어를 한자로 맞추어 표기하고, 다시 이것을 일어로 혼독하던 것을 그대로 놓고서 한자어만을 한국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 取扱(일어-도리아쓰가이) → 한국어 취급
- 見積(일어-미쓰모리) → 한국어 견적
- 取締(일어-도리시마리) → 한국어 취체
- 赤字(일어-아카지) → 한국어 적자
- 役割(일어-야쿠와리) → 한국어 역할
- 假縫(일어-가리누이) → 한국어 가봉
- 內譯(일어-우치와케) → 한국어 내역
- 身柄(일어-미가라) → 한국어 신병
- 工場渡(일어-와다시) → 한국어 공장도
- 大賣出(일어-오우리다시) → 한국어 대매출

5. 한자어계 외래어를 많이 쓰는 까닭

삼국시대에 이르러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던 한족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언어적인 교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당시부터 중국문화가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두 언어로부터의 영향이 그렇게 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한문화와 함께 한어의 서면어와, 그의 표기 수단이었던 한자·한문이 전래되자 당시 다른 표기 수단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언어체계가 다른 한자의 문자이었을망정 이를 차용하여 국어의 표기 수단으로 삼았다.

삼국시대에 한자·한문에 대한 학습을 하고, 한문 경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자 대체로 6세기경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그 무렵부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서로 다른 이중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빌려서 고유어를 기록할 때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 지명·인명·관직명 등을 기록하는 차자 표기법을 쓰기도 하고, 한문의 문장 구성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문식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래서 우리 고유어는 처음으로 문자화되었으나, 한자·한문으로의 기록이 보급됨에 따라 그만큼 고유어의 어휘는 발달되지 못하고, 한자어가 모든 분야에 침투해 들어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고유문화를 높은 수준까지 발달시키기도 전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던 한문화와 한자·한문이 전래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고유어의 어휘는 대개 기초 어휘만 남게 되고 추상적인 어휘나 좀 더 구체적인 어휘는 한자어가 대신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한자어의 증가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었다. 통일신라는 한학과 한문학을 더욱 발전시켰고, 불교도 더욱 융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것은 국어 안에 한자어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덕왕 대의 지명 개정과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개정한 것은, 한자어를 더욱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기 757년(경덕왕 16)에 전국에 9주를 두고 주, 군·현의 명칭을 2자씩으로 된 한어식 한자어로 고쳤으며, 759년(경덕왕 18)에는 문무 관직명을 한자어로 고쳤다.

이 결과 순수한 고유어를 표기하려고 노력하였던 향찰식 기록에도 한자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향찰체 자료로는 신라 향가 14수와 고려 초의 균여대사의 ‘보현십원가’밖에 안 남아 있으나, 신라 향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자어가 쓰이었다.

君 臣 民 往生 彌勒 慈悲 功德 西方 彌陀刹 乾達婆 無量壽佛
善化公主 千手觀音

그런데 이것이 균여의 「향가」에 이르면 한자어(주로 불교 관계어)가 더욱 늘어난다.

法界 南无佛 須彌 菩提 淨戒 造物 三業 緣起 衆生 煩惱 佛影
化緣 佛道 苦行 大悲 一切 法性 普賢行願

이러한 현상은 국어 어휘 속에 한자어가 깊이 들어왔음을 보이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성종은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표방하였으므로, 한학과 한문학은 더욱 크게 발달하였다. 또 한편으로 고려시대에는 불교도 높이 숭상하였으므로, 불교 경전을 통한 한자어는 더 많이 퍼졌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문인들의 작품인 ‘경기체가’를 보면 고려시대의 속요라고 하는 청산별곡 등에는 그래도 고유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데 비해서 ‘경기체가’에는 무수한 한자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이미 상층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한자어가 일반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경기체가(한림별곡에서)

黃金酒 栢子酒 五加皮酒 文卓琴 宗武中琴 雙伽椰琴 琵琶 杖鼓 琥珀盃

또 송나라 손목(孫穆)이 기록한 고려어 자료인 12세기의 ‘계림유사’에서도, 기초 어휘에 속하는 단어들까지 한자어로 기록하고 있다.

千 萬 春 夏 秋 冬 田 海 江 銅 青 黑

조선은 애당초부터 유교 국가를 표방하고 건국하였고, 성리학, 특히 주자학을 국학으로 존숭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과거를 실시하였으므로, 유학과 한문학은 일반 대중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이 1443년(세종 25)에 창제되었는데도 한자·한문 중심의 생활은 19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심지어 15세기에 쓰이고 있던 고유어조차 조선시대 500년 사이에 한자어에 밀려서 사어가 되어 버린 것이 있을 정도다.

즈믄>천(千) 온>백(百) 아습>친척(親戚) 피>산(山)

또 우리 조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처럼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는 차자 표기법을 마련하여 고유어를 기록하였다.

弗矩內=赫居世 居柒夫=荒宗

이 방법은 후세에도 이어져서, 지명 등을 기록하는 데 이용되었다.

쇠귀=우이(牛耳) 한밭=대전(大田) 터골=기곡(基谷) 삽다리=삽교(插橋)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표기를 고유어로 읽지 않고 한자의 음으로만 읽어 버리는 습관이 생겨서, 柿田[감밭], 新基[새터] 등 한자어는 늘어만 갔다.

또 생선명, 식물명, 과일명 등도 한자어로 표기한 대로 읽기를 좋아하여, 그대로 굳어 버린 것도 있다.

백송 낙엽송 송어[秀魚] 작약

이러한 습관 때문에 부사 등은 한자어가 그대로 굳어 버렸다.

급기야(及其也) 어차피(於此彼) 어언간(於焉間) 좌우간(左右間)
 심지어(甚至於) 별안간(瞥眼間)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문자의 기본 공능(功能)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음성언어를 기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비교적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한글도 국어의 음성언어를 완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로마자도 인간의 음성언어를 완전히 표기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어와 서면어(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한자는 원래 표의문자이지만, 역시 표음문자와 마찬가지로 한어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표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한자의 어음을 완전히 표기하지 못하였다더라도 독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그 본래의 자음(즉 중국 본토 자음)을 잃어버리고, 국어의 음운 체계에 맞도록 변화되거나, 그 자음을 모르는 경우에도 그 한자로 표기된 단어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한자로 표기된 문장언어를 통해서 상호간의 의사 전달이 가능했었다. 이 결과 한자와 한문은 우리 언어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의 어떤 언어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지적 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단어 수는 약 1만 9천 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자로 기록된 1만 9천 어를 기록하려면, 1만 9천 개의 한자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서, 약 2천 자의 한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들이 상호 결합하여 수없이 만들어 내는 새 개념들, 즉 새로운 단어(복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표음문자로 표기된 단어들이라면, 1만 내지 2만의 단어를 기억해야 하지만, 한자로 기록된 것이라면 불과 2천 정도의 한자만을 기억하더라도 2만 정도의 단어(단일어와 복합어)를 기억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어휘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만 한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에는 무한한 조어력이 있어서, 우리가 한자를 버리지 않는 한 국어 안의 한자어는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더욱이나 한자어의 대부분이 명사인테 이들은 다시 ‘-하다’와 결합되어 얼마라도 국어의 동사·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국어 안의 한자어 사용 빈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인구어(印歐語)에서는 학문이나 과학기술상의 새로운 술어를 만들 때에, 보통 희랍어의 어근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 동양에서는 한자를 이용한다. 다행히 국어의 고유어에 이런 조어 능력이 있었다면, 새삼스러이 새로운 한자 술어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와 같지 않아서 한자어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만일에 새로운 한자 학술어나 한자어로 된 신어 증가의 억제를 국어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면, 적절한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중지를 모아 고유어에 의한 학술어 및 신어 창조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은, 한자어 및 서구어계 외래어, 그리고 일어계 외래어·외국어와 하루도 연관을 갖지 않고는

못 살게 되었다. 의식하건 안 하건, 남들과 대화할 때에는 이들 한자어 및 외래어가 반드시 입에서 튀어나오며, 날마다 대면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길거리의 간판 등에서도 이들 어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특히 개화기 이후 서구 문물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현대식 교육이 보급되어 서구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이 보편화되자, 서구어계 외래어 가운데에서도 영어계 어휘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었음은 이미 이 글의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에 있어서 한자어나 외래어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및 외래어의 실례를 보면 이들 어휘는 군사, 문화, 식생활, 주거, 의생활 등 각 분야에 걸쳐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외래어가 널리 쓰이게 된 원인의 하나는 주로 신어 형성과 사용에서 온 것이다. 언어는 설새 없이 새것을 만든다. 지금까지 쓰이어 온 어휘만 가지고는 새로운 문물이나 개념을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어를 만든다. 그런데 이 신어는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과 함께, 이와 연관이 있는 외국어의 명칭까지도 동시에 받아들여 쓰이게 된 것이 많다. 또 우리 겨레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사물이나 관념을 표현할 경우에도, 우리는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나 서구어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고유어보다 한자어나 서구어계 어휘가 훨씬 조어력 면에 있어서 뛰어났었기 때문이다.

한자어를 포함한 모든 외래어가 이미 외국어가 아니고 국어화한 국어 어휘 체계의 일부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 오늘날에는 고유어와 외래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 외래어들도 상당한 수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래어의 남용은 결코 국어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가령

정부와 당은 10일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와 당은 영화관 입장권 등 개인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관해 일정 소득 미만의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2004년 5월 10일자 문화일보 2면 기사)

와 같은 글을 읽게 되면, 마치 이두문을 읽는 느낌이다. 이두문에서 단어는 모두 한자어를 쓰고, 조사와 어미, 그리고 ‘하다’ 등 보조사만 한자의 음과 혼을 차용하여 표기했듯이, 이 글에서 고유어는 겨우 조사 ‘와, 은’ 등과 ‘하다’가 쓰였을 뿐이다.

세계 5위의 휴대폰¹⁷⁾ 메이커인 LG전자는 76인치 PDP 텔레비전, 55인치 LCD 텔레비전, FPD(Flat Panel Display)를 비롯하여 GSM, GPRS(2.5세대 이동전화로 초고속 인터넷과 일부 영상통신이 가능), W-CDMA(3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등 다양한 휴대폰 기종을 선보였다. (월간 조선 2004년 5월호, pp.297~298.)

이것은 서구어계 외래어가 많이 쓰인, 월간지의 한 기사다. 그렇다고 이 글 전체에 나오는 한자어 및 외래어 전부를 억지로 고유어로 옮겨 쓰려는 노력은 결코 고유어를 옹계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나 언어 정책 수행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라도 외래어의 증가를 줄일 수 있고 고유어의 보존이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1945년 8·15 광복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고유어를 갈고 닭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무리하게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직역하려는 방식에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유어를 갈고 발전시키려 할 때,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될 일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일반 대중의 관용어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은 한자어로 학술어를 모르더라도

17) ‘휴대전화’의 잘못된 쓰임(편집자 주).

순수한 고유어로 된 동식물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 정책가의 인위적인 조어와는 상관없이 물결의 흐름과 같이 대중의 언어생활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순수 고유어를 되살려 쓰고, 새롭게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겨레 언어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 흐름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 곧 우리 겨레의 슬기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겨레의 슬기로 한자어나 서구어계 외래어가 아닌 순수한 고유어 신어들을 창조하여 풍성하게 일반 대중의 언어로서 사용해 왔다.

대중의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고유어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고유어를 공부하고, 방언 조사를 통하여 잊혔던 어휘들을 다시 찾아 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姜信沆(1991), “현대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太學社.
 徐在克(1971), ‘開化期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4, 啓明大.
 李能和(1928),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上·下.
 李鍾極(1937), “모던 朝鮮外來語辭典”, 京城漢城圖書株式會社.